

깨달음에 이르기까지

한 자루의 향을 사르고, 삼가 부처님 전에 고합니다.
저희들은 이제 당신의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합니다.

부처님. 당신의 가르침이 필요한 곳.
당신의 가르침이 구현되어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.
당신이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들면서 맹세하셨듯이
저희도 당신을 따라 맹세합니다.

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.
가죽과 뼈와 살이 녹아버려도 좋다.
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
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.

저희 맹세가 헛되지 않다면. 이곳이 한국의 붓다가야가 될 것입니다.

〈상월선원 천막결사 고불문 中에서〉